“극락왕생 하소서”…창건주 원력 되새겨

부산 홍법사, 제33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하도명화 보살 ‘불법홍포’ 원력
나라에 헌신한 호국영령 추모도
‘호국의 숨결대회’ 2000명 참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내 일원에서 ‘제33회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를 봉행했다. 홍법사는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며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전법 원력을 기념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행사는 천도재 및 백중 입재로 시작을 알렸으며 개회사 및 헌다,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묵념,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환영사, 인사말, 추도사, 봉행사,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법석에는 주지 심산 스님과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레이 리버스 목사,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의장, 이영경 동국대WISE 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심산 스님은 “홍법사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추모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끝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허공의 참뜻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대는 항상 변하고 있지만 창건주 보살님의 원력을 이어가기 위해 홍법사 구성원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허공에 가득찬 모든 영가들이여, 모든 업장 소멸하고 성불해서 극락왕생 이루시길 바란다”며 “오늘 이 거룩한 추모법회를 이끌어주신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신도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레이 리버스 목사는 “70여 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아버지의 발자취를 생각하게 된다. 이곳에 걸려있는 국기들을 바라보며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던 저의 옛 기억도 떠오른다”며 “한국의 발전과 많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며 기뻤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모든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을 창립한 1990년부터 시작해 33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1996년에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로 명칭을 변경하고 두구동 신창농원(현 홍법사)에서 봉행했다. 2003년 제13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 (재)불심홍법원의 뜻을 계승하고자 행사를 공동주최했으며, 2011년부터 매년 해외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홍법사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내 일원에서 ‘제33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했다.

아울러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우란분절 백중 입재와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를 함께 봉행하고 있다.

한편,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 이어 오후에는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이 주최하는 ‘제11회 호국의 숨결 대회’가 진행됐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세 분야로 진행됐으며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방하착 · 육바라밀은 불자 행동강령”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초청
범어사 ‘백중 선지식 초청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산 범어사(주지 보운)가 봉행한 ‘2023 백중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법회’에서 방하착(放下著)과 육바라밀을 강조하며 불자들의 행동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6월 6일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을 맞아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진행하며 선지식 초청 법회를 진행해왔다. 입재를 맞아 범어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했다.

진우 스님은 법석에서 ‘무엇보다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내려놓는 경지’인 방하착과 보시행을 강조하는 육바라밀을 설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분별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면 인과가 생겨 그게 바로 업이 된다. 따라서 마음을 내려놓는 방하착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동강령이 바로 육바라밀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시는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 것’이라는 착(着)이 붙어있으면 보시가 아니다. 지속적인 보시바라밀 실천으로 ‘내 것’이라는 착을 소멸하는 법열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범어사가 봉행한 ‘2023 백중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법회’에서 입재법문을 설했다.

이날 법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렸으며 대중은 진우 스님을 따라 함께 정진에 동참했다. 108배에는 종회의원 석산 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서봉 스님, 범어사 신도 및 제주 관음사 신도회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법문을 해주시기 위해 친히 방문해주신 진우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백중지장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신도님들이 회향의 날까지 정진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법회는 6월 6일 입재해 9월 2일 회향한다.

선지식 초청법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경내 설법전에서 진행하며, 창원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6월 10일), 원효학원 이사장 정만 스님(6월 17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6월 24일),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7월 1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7월 8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연구원장 경암 스님(7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서봉 스님(7월 22일),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7월 29일), 진해 정암사 주지 상운 스님(8월 5일), 김해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8월 12일),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8월 19일),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8월 26일)이 법문을 이어간다. 회향은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9월 2일)이 설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처님 탄생 찬탄한 불자들의 詩

부산불교문인협회, 부처님오신날 시 낭송 법회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가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감로사 삼천불전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찬탄하는 시 낭송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혜총 대종사,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장, 이석래 (사)부산문인협회 이사장, 박혜숙 사무처장, 채경자 사무국장 등 회원 70여 명과 서병수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혜총 대종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통으로 가득한 사바세계에서 봄처럼 싱그럽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며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다. 그리고 여러분 한분 한분은 문학인 시라는 방편으로 부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포교사”라고 격려했다.



차정연 회장은 “우리는 불자 문인으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을 지침으로 삼아 사회의 일원으로 선한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로서의 나를 바라보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시낭송 대회를 2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글 · 그림 실력 뽐낸 밀양 천진불들

밀양 용궁사, 제17회 연꽃문화제 · 시낭송대회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가 6월 3일 용궁사 경내 일원에서 ‘제17회 사명 연꽃 문화제 및 시낭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시작을 알리는 시낭송과 어린이 요가시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1부 개회사, 인사말, 축사, 심사위원 소개, 심사기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시낭송 발표, 초대 시낭송극, 3부는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 손경순 밀양교육장, 김현봉 한국예총 밀양지회장, 김정복 문인협회밀양지부장, 박찬대 포교사단 밀양총괄팀장, 참가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올해 사명 연꽃 문화제 대상 수상자는 없으며, 최우수상은 그리기 부문 전혜린(예림초3) 양과 글짓기 부문 방나윤(밀양초5) 양이 받았다.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은 “대중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시낭송을 통해 자긍심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고 대회를 통해 좋은 시를 많이 듣고 마음의 감동과 울림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소년 · 소녀 가장 돕는 자비행

울산불교신도회봉사단, 아이들 위한 생필품 지원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봉사단(회장 이영수)이 5월 31일 신도회 사무실에서 ‘어려운 소년 · 소녀 가정 후원물품 전달식’을 봉행했다.

신도회봉사단은 지역 내 어려운 소외가정 및 청소년을 위해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나눔을 위해 울산에 있는 백양사 및 신도회 회원들이 대거 동참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후원물품은 울산 백양사에서 백미 10kg 62포를 후원했으며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가 마련한 라면 31박스,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31장, 여학생을 위한 위생용품, 화장품 등이다. 지원 가정 청소년은 총 31명이며 울산 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이영수 회장은 “청소년들의 성별을 고려해 다양한 물품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